"불복장, 백양사 중심으로 계맥 전승"

불복장 의식 보존회, 7일 묵담대종사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된 불복장에 대한 전반적 사상과 내용, 계보를 학술적으로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의식 보존회는 9월 7일 담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도월 수진 스님 계열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중흥조 묵담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스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 금붕사 주지 수암 스님은 '묵담대종사의 불복장 중흥과 전승' 주제 발표에서 묵담대종사를 중심으로 한 불복장 의식의 계보를 정리했다.

묵담대종사 선 · 교 · 율을 겸비한 선지식으로, 불교조계종 5 · 6 · 7세와 한국불교태고종 3 · 4세 종정을 역임했다. 또한 해동율맥을 이은 제9대 율사이자 전계화상으로, 모든 불사에 작법증명하는 증명법사로도 널리 알려졌다.

수암 스님은 불복장 의식이 "묵담대종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백양사 계보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스님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명맥을 이어 온 불복장의식은 조선시대 용허화악 스님 등에 의해 정리된 이후, 조선후기 호남지방에서 활약한 고승 연담유일(1720~1799) 선사에게로 이어졌다. 연담유일 선사의 맥은 화담법인 스님과 금해관영 스님을 거쳐서 묵담성우 스님에게로 전해졌다. 이는 다시 수진 스님에게 이어지고 있다.

수암 스님은 "현재 불복장 작법은 대부분 백양사를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온 계보를 잇고 있다"면서 "백양사 중심으로 계보가 전승된 묵담대종사를 중흥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복장의식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복장물목이 소박해지고 절차가 약소해지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묵담대종사는 계율을 지키는 율사로서 불복장 의식을 원형 그대로 보존 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해동 율맥 9대 율사 묵담대종사 가 아니었다면 의식의 전통은 무너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암 스님은 묵담대종사의 의맥(儀脈)을 계승한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의 전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스님은 "오늘날 불복장이 얼마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복장물을 조성 · 안립하고 있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전수받은 수진 스님의 불복장물 조성과 안립 절차는 많은 연구와 더불어 전수자 양성을 통한 의식절차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묵담대종사 진영.

'묵담→수진' 의식 계보 조명
조선시대 용허화악 스님 정리
연담→화담 · 금해→묵담 계승
"율사인 묵담 원형 보존 노력"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담양 용화사 도월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을 통해 수진 스님의 전승 활동을 조명했다.

이종수 교수는 "수진 스님은 묵담대종사와의 인연으로 출가하고 백양사와 해인사 강원을 거쳐 다시 용화사로 돌아와 대종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제자 가운데 수진 스님이 대종사의 후계자가 돼 법맥 · 율맥 · 의맥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대종사를 시봉하면서 지금까지 용화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복장 전통 작법 등 계승되고 있는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에서 수진 스님의 전통 계승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이중표(전남대)의 '불복장 작법의 사상적 배경' △이승혜(리움박물관)의 '불복장 작법의 발생과 전래' △남권희(경북대)의 '담양 용화사 소장 불복장 작법 관련 필사본의 서지적 가치' 등이 발표됐다.

대행 선사 생애와 교화행 살핀다

대행선연구원 9월 21일 제5회 계절발표회

대행 선사의 생애와 교화행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9월 21일 오후 1시30분 안양 한마음선원 3층 제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교화행과 계율 실천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은 황상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의 '대행 선사의 생애와 교화행',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오계 실천의 의의- 불살생계를 중심으로'이다.

논평자로는 법장 스님(해인승가대), 백도수(능인불교대학원대학), 김광식(동국대), 이상호(대행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널리 알리고, 주요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학술대회 및 4번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선학과 불교학 중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불자들의 참석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원효 저술 고전 '이장의' 한글화 됐다

동국대 ABC사업단 간행… '몽암대사문집' 등도

원효 저술과 관련 주석서가 한글화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장의〉 〈지범요기조람집〉 〈몽암대사문집〉을 간행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이장의(二障義)〉는 원효(元曉, 617-686) 스님이 불교의 번뇌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저술이다. 원효 스님은 유식학파에서 확립된 번뇌장(煩惱藏)과 소지장(所知障)의 이장(二障)과 〈대승기신론〉에서 유래한 번뇌애(煩惱礙)와 지애(智礙)의 이애(二礙)를 하나의 체계 안에 포섭함으로써 당시까지의 불교의 번뇌설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이장의〉는 안성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옮기고, 은정희 前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증의했다.

〈지범요기조람집(持犯要記助覽集)〉은 원효 스님이 지은 보살계본 관련 글인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에 대한 일본 승려 진원(眞圓)의 주석서이다.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는 8세기 이후 일본에 전해졌다. 진원은 1282년 원효의 책을 강의하면서 이 책에 나온 인용의 출전을 낱낱이 밝혔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함으로써 원효의 보살계 사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옮겼으며, 은정희 前교수가 증의를 맡았다.

〈몽암대사문집(夢庵大師文集)〉은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조선의 승려 몽암 기영(夢庵箕穎)이 남긴 시문집이다. 몽암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가 지리산을 기반으로 전국의 절을 다니며 운수행각(雲水行脚)하였다는 것이 이 문집에 잘 드러나 있다. 지리산은 물론이고 해인사와 공주 일대의 사찰과 관련된 글이 많고, 또한 금강산과 금강산을 오가는 길목의 강원도 일대 지역과 관련된 시문도 여러 편이어서 그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가 된다.

몽암의 시와 문을 보면 그가 유가나 도가의 문헌뿐 아니라 사서(史書)와 중국 시인의 시구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장자와 소동파(蘇東坡)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던 몽암의 문집이 번역됨으로써 조선 후기 불교계의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접할 수 있게 됐다.

신성민 기자



"삼회향놀이문화 학술 가치 재조명"

(사)아랫녘수륙재보존회 불교의식음악 학술대회

삼회향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수륙재보존회(회장 석봉, 이하 아랫녘수륙재보존회)는 8월 30일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제10회 불교의식음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삼회향놀이 전반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주요논문으로는 △'삼회향의 역사 · 문화적 의미와 가치'(최헌, 부산대) △'삼회향과 땅설법'(허용호, 동국대) △'충북 무형문화재 제25호 단양 구인사의 삼회향놀이'(석용 스님, 문강사) △'불교 놀이문화로서 삼회향놀이의 무형유산적 가치와 전승 방향'(김형근, 동아대) 등이 발표됐다. 석봉 스님은 "삼회향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족적 · 요가 등 응용분야 논문 '눈길'

동국대 2019년 하반기 불교 박사학위는 (下)

동국대(총장 윤성이)에서 올해 상반기 불교 관련 박사 16명이 배출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기재한다. 저자 요청으로 미공개된 논문들은 제외했다.

법진 스님(대학원 인도철학과)은 '불족적의 상징체계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동남아시아에서 불족적은 종교적 대상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현실세계의 구심점"이라며 "통치자들이 담마라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은 뜻하지 않게 불교를 현실참여의 형태로 발전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남아시아의 불족적은 초기의 불족적과는 완전히 다른 동남아의 역사와 정치라는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봤다.

휴담 스님(대학원 선학과)은 '원오선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논문을 통해 〈원오심요〉와 〈벽암록〉을 중심으로 원오선의 본질을 고찰했으며, 대혜선에 미친 영향은 대혜의 화두 참구법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양영순 박사는 '자이나교의 요가 명상론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도 종교성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치유 및 자기 계발 수단으로서 확산되고 있다. 현대 요가와 명상의 인도적 기원을 이루는 자이나교의 수행론과 요가 명상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일 것"이라며 "생명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철저한 윤리의식에 기반하여, 탈속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자이나교의 요가 명상론이 현대 요가 명상 분야에서 인도적 수행의 전통적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숙 박사(대학원 미술학과)는 '조선말기(19세기)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의 도상학적 연구'에서 "19세기 관경변상도는 네 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면서 "대중이 추구하는 왕생사상과 문화적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석곤 박사(대학원 미술학과)는 '월주문파의 불교회화 연구'에서 "월주(月洲)문파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근대기를 거쳐 현대까지 화맥(畵脈)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서 스님(대학원 한국불교융합학과)은 '한국전통 불교문헌 영어 번역 방법론 연구'를 통해 묵암 최눌(默庵最訥)의 〈묵암집(默庵集)〉 번역 사례로 불교문헌 영어 번역 방법을 제안했다.

송봉주 박사(대학원 미술학과)는 '인도 불교석굴과 불탑 연구- 차이티야굴을 중심으로'로, 최주연(대학원 미술사학과)는 '중세 동아시아 교류와 고려동경 연구'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신성민 기자



